



고양시 하천 친구들

곤충편 (4)





“

고양시하천에는 어떤 곤충이
살고 있을까요 ??

”





황오색나비



우리 나라 전역에서 여름과 가을에 볼 수 있습니다.
짙은 노란색을 띠며 수컷은 빛을 받으면 날개 위쪽이
보라색을 띠니다. 흰색 또는 노란색 점박이 무늬가 있으며
갈색 계통의 다채로운 색이 섞여있습니다.
참나무, 뽕나무 등의 수액을 먹으며 삽니다.

홍줄노린재



몸길이 9~12mm입니다. 광택이 있는 검정색 바탕에 붉은 세로줄 무늬가 등면에 나타납니다.

개체에 따라 줄무늬는 적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변이가 심합니다.

자극을 주면 배 부분의 분비샘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미나리과 식물의 꽃과 종자에 잘 모입니다.

작은호랑 하늘소



몸 윗면은 검고 앞가슴등판은 몸에 비해 크고 둥글며
회백색 털이 나 있습니다. 딱지날개에는 회백색
갈고리무늬와 아래로 가로 줄무늬가 있습니다.
성충은 산지의 죽은 활엽수나 벌채목이 쌓여 있는 곳에
많은 수가 모입니다.

서울병대 벌레



몸길이 7~11mm 입니다. 겹눈은 흑색인데 앞으로 크게 돌출하여 병대벌레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. 머리,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으로 딱지날개의 봉합선 부근과 테두리만 황갈색이고 나머지 부분은 짙은 적흑색입니다.

고추좀 잡자리



배길이 20~26mm, 뒷날개 길이는 23~33mm입니다.
암수 모두 가슴이 황색이고 배는 주황색입니다.
가을이 되면 가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
수컷은 배 전체가 적색, 암컷은 배의 위쪽만 적색이 됩니다.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모니터링 참여

고양자연생태연구회
더불어성사천
어린이식물연구회
에코코리아
하천생태동아리

- 2019년 고양시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-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

2019년 모니터링 카드뉴스 곤충편
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.
 2020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
 부탁드립니다 !